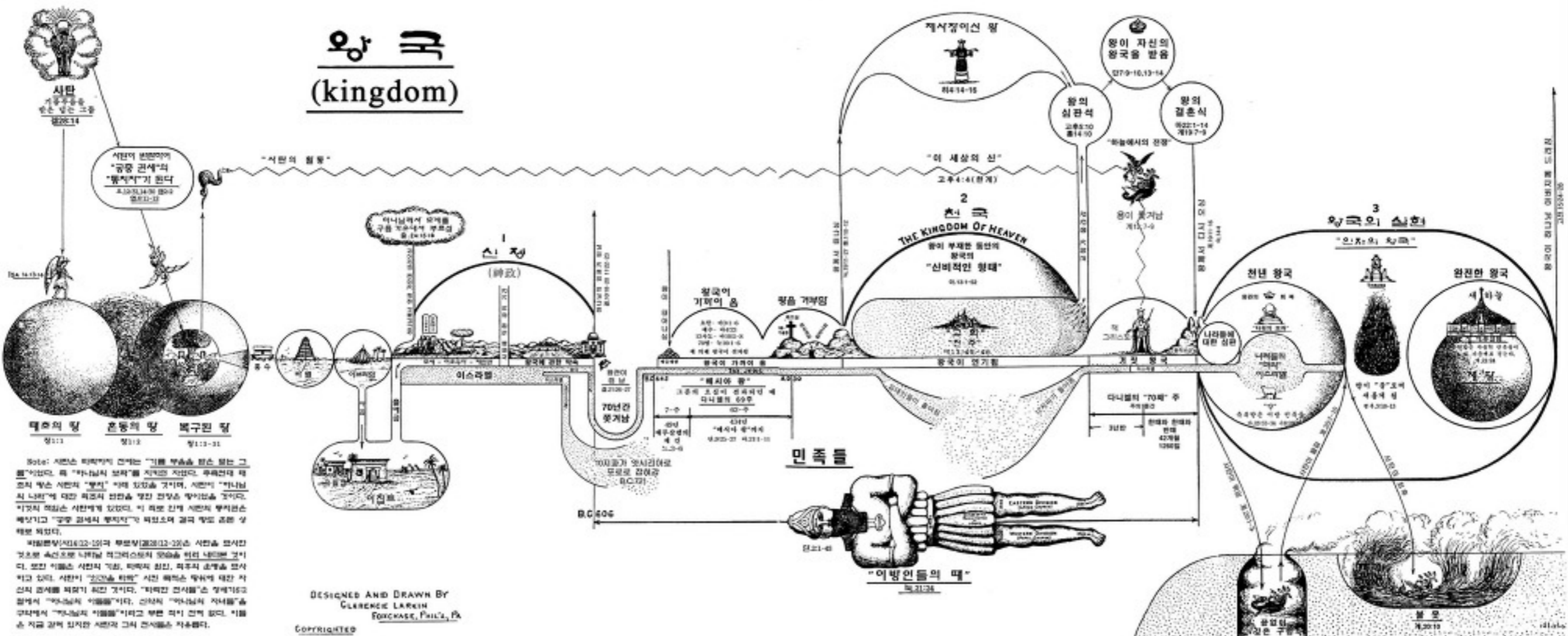


왕국 (kingdom)



시한
기독교를
받은 왕은 그 후
B.C. 14

시한이 본인이
"공중 권세"의
"통치자"가 된다
A.D. 314에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태초의 왕
창: 1-2

홍수의 왕
창: 1-9

복구된 왕
창: 12-31

Note: 시한은 타락하기 전에는 "기쁜 부활을 받은 왕은 그 왕"이었다. 즉 "하나님이 보좌"를 지키고 있었다. 후회없는 태초의 왕은 시한이 "왕적"하게 있었을 것이며, 시한이 "하나님이 나리"에 대한 복종의 원리를 영의 관망으로 향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시한에게 있었다. 이 바로 신이 시한이 왕이 된 순간이었다. "공중 권세"의 통치자"가 되었다. 이 왕의 조종은 왕의 왕이었다.

왕국(창: 12-15)과 후회(창: 12-15)는 시한을 묘사한 것으로 속으로의 나쁜 마음과 그로써의 3000년 뒤의 내면의 것이다. 또한 시한은 시한이 "왕"이 되어 왕이 되고, 후회와 조종을 묘사하고 있다. 시한이 "3000년 후" 시한 왕은 왕위에 대한 자신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타락한 권세"는 창: 16:22에서 "하나님이 이들을"이다. 신이 "하나님이 저들을"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을"이라고 부른 것이 있다. "이들"은 지금 왕이 된 시한이 그의 권세를 자취한다.

DESIGNED AND DRAWN BY
CLARENCE LARKIN
FOURCHASE, PHILA., PA.
COPYRIGHTED



민족들

"이방인들의 때"
B.C. 500

2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왕이 부재한 동안의 왕국의 "신비적인 형태"
B.C. 500-400

재석중인 신 왕
B.C. 14-15

왕의 심판석
고후 4:10
B.C. 400

왕이 자신의 왕국을 받음
B.C. 10-13-14

왕의 결혼식
B.C. 11-14
B.C. 19-7-9

왕이 불거남
B.C. 7-9

왕국 쇠퇴

3
왕국의 쇠퇴

천년 왕국
왕이 "공중"에
재림할 때
A.D. 1914-1918

완전한 왕국
세리 왕
왕이 "공중"에
재림할 때
A.D. 1918-1919

왕국이
받은 구약

왕은
A.D. 1919

왕국은 왕국으로
재림할 때

1919

킹제임스 성경학교 오프라인 강의 노트(77)

주제: 왕국(Kingdom)

(개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이 땅 위에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세우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창 1:26-28).

그러나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대신 사탄이 그자리를 찬탈하여 "이 세상 통치자"로 앉아있게 되었다(마 4:8-10, 요 14:30)

그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이 땅 위에 "눈이 보이는 왕국"을 세우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셨다.

이후로 모세, 여호수아, 장로들, 재판관들, 다윗, 솔로몬, 유다의 왕들, 등 하나님께서는 표면상 "유대 국가"라는 형태로 이 왕국을 그들에게 맡기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신정"형태로써 통치하셨다.

그러나 사무엘이 재판관이던 시절,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여 왕을 구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백성들의 뜻대로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삼상 8 | 6,7).

그후 왕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을 통해 계승되었지만, 다윗의 자손들의 잘못과 백성들의 우상숭배로 인해 BC606년에 이스라엘 왕국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통치는 중단되고,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었다.

1.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고자 계획.
- 침례인 요한을 통해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마 3:1,2).
- 왕이신 예수께서도 같은 선포를 하심(마 10:7)
- 그러나 왕은 거부당하시어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써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연기됨.

- 그 왕국은 신비적인 형태의 천국으로 감추어짐(마 13 장)
-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와 천국(Kingdom of heaven)을 반드시 구분해야 함.

-"하나님의 나라(왕국)"은 시간과 영원, 하늘과 땅을 포함한 그분의 모든 피조물 위에 펼쳐지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이다. 이 나라는 볼 수 있게 오지 않으며, 또한 영적인 나라다(눅 17:20,21) 이 나라는 거듭남에 의해 들어갈 수 있는데(요 3:5), 로마서에 따르면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롬 14:17)

-반면 "천국"(Kingdom of heaven)이란 용어는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3 장에서는 "천국의 신비"라는 이름으로 그 신비적인 형태의 왕국을 설명하는 비유가 일곱 가지가 제시된다.

-그 비유들은 "천국의 비유"라고 불릴 수 있는데, 이러한 천국의 비유는 마태복음에서 열두 개나 발견된다(마 13:1-50;16:23-25;20:1-16;22:1-14; 25:1-30).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신비적인 형태의 천국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그 영역은 이 세상(지구)이다. 그러므로 이 신비의 천국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며, 곡식과 독보리,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현명한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다.

1) 왕국의 연기:

- "왕국의 연기"라는 이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실제로 보이는 왕국은 없으며 단지 영적인 왕국만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구약성경은 "인자"인 메시아가 이 땅을 실제로 통치할 것이며, 지상에 펼쳐질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다(단 7:13-14;2:34-35, 44-45, 램 23:5, 슄 14:9)
-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시므온, 안나)
- 또한 동방에서 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물었으며,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했다.
- 예수님이 30 세가 되셨을 때, 침례인 요한이 나타나,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3:2)고 전파했다.
- 요한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마 11:2-5)
- 이 메시아 왕국을 "천국"(Kingdom of heaven)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하늘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 이 천국에 대한 선포는 침례인 요한이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기 전이었다.
- 예수께서는 스가랴 9:9 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 예수께서는, 지금은, 즉 그 당시에는 그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 교회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할 것을 미리 아셨고, 교회가 형성되어 들림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아셨을뿐이다.
- 왕국은 외적이며 눈에 보이는 지상의 정치적인 조직체이며, 이 땅 위에 세워진다. 반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성의 영적 유기체이며, 이 땅으로부터 끌려올라갈 것이다(살전 4:16-17).
- 왕국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준비되었다(마 25:34).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그분 안에서 택함받았다(엡 1:4) 따라서 교회와 왕국은 다르다.

2) 산상설교:

- 마태복음은 교리적이로써 유대인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다. 물론 영적인 적용도 가능한 부분도 있다.
- 산상설교의 한 부분인 소위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마 6:10). 이것은 교회의 확장이나 번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여기에서는 죄에서 구원해 달라는 내용은 없으며, 단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같은 간구만이 있을 뿐이다.
- 이 구절은 환란 기간 중에 빨리 왕이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 그들은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야 한다.
-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는 그분이 백성들로부터 배척되기 전에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설교는 왕국이 세워지기 위한 기초가 된다.

3) 제자들의 질문:

- "주여, 이 때에 이스라엘에게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습니까?"(행 1:6)
- 주님의 대답: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행 1:7)
- 누가복음에서는 먼 나라에 왕권을 받으러 가는 어떤 귀인(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눅 19:11,12).